

- 제 10편  
 소사신앙촌 시대 제1부  
 一. 신앙촌(信仰村)이란?  
 二. 첫째신앙촌·소사신앙촌·첫째올타리  
 1) 소사신앙촌  
 2) 소사신앙촌이 건설된 장소  
 3) 소사신앙촌 생활  
 4) 영모님이 세운 하늘의 법알에 쓰러져나가는 신앙촌사람들  
 5) 노구산 집회 기우제

5) 노구산집회(露救山集會): 기우제(祈雨祭)

1958년도의 신앙촌시대의 역사는 참으로 희망과 환희로 가득한 해였다. 교인들은 활기가 넘쳤다. 성경에 예언된 말씀대로 전국적으로는 곡식갈이 부흥되고 있었다(호14:7참조). 소사신앙촌의 공장에서는 최고의 제품이 생산되어 전국에 호평을 받으며 판매가 되고 있고 또 신앙촌 교인들은 신앙으로 열심히 매달려 하루라도 빨리 심령을 이루어지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었다. 영모님은 여전히 일주일내내 전국을 순회하시고 계셨다.

그런데 1958년도에 농촌의 농민들은 비가 안와서 애를 태우고 있었다. 7월이 되니까 논바닥은 타들어가고 비는 오지 않고 농민뿐만 아니라 온 국민들이 너무 가물어 마시는 식수걱정까지 해야 하는 기가 막힌 때였다.

영모님은 돌연 지방을 순회하시면서 소사신앙촌 노구산에서 대 집회를 여시겠다고 선언하시면서 전국을 순회하셨다. 그러시면서 이 노구산 집회는 기우제(祈雨祭)를 겸한 집회이니 비를 흠뻑 맞을 각오를 하고 노구산 집회에 참석하라고 하시는 것이다.

여기서 영모님이 기우제를 겸한 특별 집회를 여시겠다고 하시는 소사신앙촌의 노구산(露救山)은 어떤 산인가를 잠깐 살펴보자.

노구산은 소사신앙촌이 건설된 계수리와 벌바리 중간에 위치한 산이다. 원명(原名)은 노고산(老姑山)이다. 그런데 영모님이 소사신앙촌을 건설하시면서 노구산(露救山)이라고 이름을 바꿔 부르셨다. 이슬은혜를 내려 구원시켜 주

는 산이라는 뜻이다.

그리고 이 노구산이 마주 보고 있는 곳에 소래산(蘇萊山)이 있다. 당시는 다들 말하기를 노구산에서 이슬은혜를 받아 이루어져 왕의 자격을 얻은 신앙촌 사람들이 마주 보이는 소래산에서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맞이하게 된다고 생각을 하였다. 다들 그와 같은 일이 꼭 되어질 것임을 의심하지 않고 믿고 있었다. 한문으로 예수를 아소(耶蘇)라고 하기 때문에 소래(蘇萊)라는 산은 아소가 오시는 산이라는 뜻이라고들 해석한 것이다.

또한 성경에는 감람산에 재림주님이 오신다고 하였으니(행1장 참조) 이곳 신앙촌은 감람나무 영모님이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이곳에 있는 산은 영적인 감람산이 되는 것이니 이곳으로 재림주님은 오실 것이라고들 해석을 한 것이다.

한편 노구산과 소래산은 우리 민족 예언서인 격암유록에 매우 중요한 산으로 예언이 되어있다.

天藏地秘吉星照 桂樹籬村是吉地 蘇萊  
 천장지비길성조 계수범바리시길지 소래  
 老姑兩山相望稀座.....聖山兩路  
 노고양산상망희좌 성산성로

“하늘이 감추고 땅이 숨긴 곳에서 길한 별이 밝게 비치는 곳이 계수와 범박인데 이곳은 매우 좋은 길지이다. 이곳은 소래와 노고 양산이 서로 마주 보며 희귀하게 앉아 있다.”

이와 같이 소래산과 노고산이 신앙촌을 가운데 두고 서로 바라보고 있다고 500년 전에 남사고선생은 이곳이 이렇게 귀중한 곳이라고 예언을 해놓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귀하게 예언된 이 노구산에서 영모님은 기우제를 겸한 대집회를 하시겠다고 선언을 하고 계신 것이다. 더욱이 이번 노구산 집회는 기

# 전도관 역사는 구세주를 출현시킨 역사였다 (32회)

## 제10편 소사신앙촌 시대 제1부



기우제집회시 노구산정에 모인 신앙촌 사람들. 엄청난 비가 쏟아지는 속에 열린 집회였다

우제를 겸한 집회이니 다들 비를 흠뻑 맞을 각오를 하고 참석을 하라고 신신 당부를 하시는 것이다.

당시 영모님이 집회를 하신다고 한 노구산은 전혀 다들 어지르지 않은 자연 그대로 있는 상태의 산이다. 그곳에 천막을 칠 수도 없고 또 산비탈이 다들 어지르지 않은 곳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앉을 수도 없는 곳이라 과연 어떤 식으로 집회를 하려고 하시는지 알 수가 없었다. 비를 맞을 각오를 하고 오라고 하였으니 천막같은 것은 치지 않을 것 같고 또 천막이 있다고 해도 그 경사진 산 일대에 천막을 친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렇다고 노구산을 보면 도저히 집회시에 앉아서 예배를 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었다. 보통 상식으로 집회를 한다면 평평한 운동장 같은 곳에다 큰 천막을 치고 하는 것을 상상하고 있기 때문에 다들 어떻게 이런 다들 어지르지 않은 야산에서 집회를 하시겠다는 것인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어찌되었건 소사 신앙촌집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전국에서 속속 몰려들기 시작했다. 집회날이 되었다. 노구산정에는 임시로 설치된 단이 들어섰다. 그리고

마이크 시설과 산 사방에 대형스피커 시설을 한 것이 전부였다. 교인들은 단상이 있는 곳에서부터 먼저 온 사람들 순서로 경사진 산자락에 자리를 잡고 앉기 시작을 하였다. 단상을 중심으로 경사진 산자락은 더 이상 앉을 자리가 없었다. 그러나 영모님이 안 보이더라도 단 뒷쪽의 경사진 산자락에 사람들은 앉기 시작하였다. 벌써 그 노구산정을 중심으로 사방 뱅 둘러 일대는 사람들로 발디딜 틈조차 없었다. 그 넓은 노구산 주위가 밤을 디딜 틈도 없게 빼곡찬 것이다. 급경사가 진 산등성이는 잘 못 앉으면 뒤로 넘어지기에 꼭 앞맞은 환경이다.

당시의 노구산 예배시에 찍은 사진을 보면 알겠지만 노구산 일대는 장관을 이루었다. 예배도 시작이 안 되었는데 하늘을 보니 벌써 시커먼 구름이 몰려오고 있다. 곧 비가 쏟아질 것 같은 하늘이다.

그러나 교인들은 이미 영모님 말씀에 의해서 비를 맞을 각오를 하고 집회에 참석한지라 노구산 주위를 꼭 메운 교인들은 차분한 마음으로 준비 찬송에만 열중하고들 있다.

드디어 영모님이 단상에 나오시고 영모님의 우렁찬 찬송소리가 노구산정 사방에 설치해 놓은 대형 스피커에서 울

러 퍼지기 시작하였다. 교인들은 있는 힘을 다하여 찬송을 부르기 시작하였다. 그때 하늘에서는 비가 부슬부슬 내리기 시작한다. 영모님을 중심으로 전교인들은 오는 비에는 상관도 안하고 힘차게 찬송을 부르며 예배에만 열중하고 있다. 그런데 부슬부슬 내리는 비 정도는 참으 예배를 보는데 아무런 지장도 안 되었으나 하늘에서는 시커먼 먹구름이 덮이고 비는 점점 세차게 오기 시작을 하는 것이다. 그러더니 폭포수가 쏟아지는 것처럼 쏟아지기 시작을 했다. 점점 빗줄기는 굵어지면서 태평양 바닷물을 다 퍼다가 쏟아붓는 것같이 세차게 쏟아지는 것이다. 빗소리가 얼마나 세차고 우렁찬지는 영모님의 음성

이 잘 들리지 않을 정도였다. 스피커 소리를 더 크게 볼륨을 올려서 소리를 더 크게 하였다. 굵은 빗줄기가 쏟아져 오지 않나 산정에서부터 빗물은 하천 같이 되어 활활 하는 소리를 내면서 쏟아져 내려 온다. 사람들이 앉은 경사진 산자락에는 위에서부터 물이 시냇물처럼 흘러서 앉은 자리가 다 꿰이면서 흙탕물이 온 전신을 적신다. 그리고 대부분 경사진 산자락에서도 약간 패여서 앉기에 편하게 된 곳에 앉았는데 그곳에는 물이 넘쳐서 허리 아래는 온통 흙탕물에 잠겨지게 되었다. 쏟아지는 비

는 멈출 줄을 모르고 더욱 세차게 쏟아붓고 있는데 거기다가 바람까지 세차게 불어대니 참으로 견디기가 힘들었다. 더욱이 견디기가 힘들었던 것은 하늘에서 쏟아지는 폭포수같은 빗줄기가 머리를 때리고 머리를 때린 빗줄기는 얼굴로 눈으로 강물처럼 쏟아지니 눈도 뜰 수가 없고 저 산정상에 계신 영모님을 향해 쪽으로 얼굴을 틀어 바라본다는 것은 불가능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영모님은 이렇듯 하지 않으시고 힘차게 설교 말씀을 하고 계시고 또한 그 많은 교인들은 누구 한 사람도 몸을 움직이거나 당황하여 일어나서 갈팡질팡하는 모습들은 찾아볼 수가 없었다. 그것도 예배시간은 2시간도 훨씬 넘게 진행이 되었다. 연신 얼굴에 줄줄 흘러내리는 빗물을 두손으로 씻어 내리기에 정신이 없었다.

이렇게 쏟아지는 빗줄기 속에서 예배를 본 그날 그 세찬 빗줄기 속에서도 이슬은혜는 강하게 내려 여러 장의 성화사진을 만들어냈다. 유감스럽게도 그날 내린 이슬사진을 구하지 못하여 게재하지 못함을 안타깝게 생각한다. 이 노구산 집회는 일주일 동안 계속되는데 대부분의 집회시에 비를 맞는 집회가 되었다.

이로 인해 가물었던 대지에는 흠족한 비가 내려 풍요로운 대지를 만들어 주었다. 영모님 말씀이 이번 노구산 집회는 기우제를 겸한 집회니 집회에서 비를 맞을 준비를 하고 오라고 하신 말씀대로 엄청난 비를 맞으면서 집회에 참석을 하였다. 그러면서도 교인들은 보람있는 집회에 참석을 하였다고 흠족해 하였다. 이때 집회에 참석한 수가 10만여 명이라고도 하고 20만이 넘는다고도 하는데 어쨌든 노구산정을 중심으로 뱅 둘러 일대에 더 이상 사람들 틈을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을 정도로 사방을 가득 메웠으니 그 수는 독자들의 상상에 맡기겠다.\*

### 도덕경 해설

# 天之道 천지도

## 하늘의 도에 있어서

### 도덕경 73장 해설

天之道(천지도): 하늘의 도에 있어서 오늘날 현실 사회에서 옛날에 비해 크게 찾아볼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다. 사람이 하늘을 공경하는 마음이 없고, 땅을 숭고히 여기는 마음이 없다. 임금의 어짐이 없고, 신하의 의리가 없다. 스승과 제자 간에 예의가 없고, 사람간의 사랑과 정감이 없다.

더더구나 사람 속에 참다운 용기가 없다. 이것을 본질적으로 접근하면 도가 없다고 해야 할 것이다.

안 될 여러 가지 참다운 덕목 가운데에서도 특히, 용기에 대해 성찰해 보고자 한다. 용기의 사전적 의미는 씩씩하고 굳센 기운, 또는 사물을 겁내지 않는 기개라고 적고 있다. 좋은 말이다. 하지만 진정한 용기란 겁이 없는 것이 아니라, 어떤 옳다고 여기는 것에 대해 어떤 거대한 세력 앞에서도 비굴하지 않는 마음이다.

그 진정한 용기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할라치면, 거기에 가치의 등

급이 매겨질 수 있다. 이 우주와 인간 사회에서 가장 최고의 존엄한 용기는 바로, 생명을 살리는데 망설이지 않는 용기라 본다. 이 우주 가운데서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이 생명이다. 자신의 생명과도 바꿀 수 있는 것은 어떤 것도 없다. 과연 이 지구상에서 아 니, 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오늘날 과연 얼마나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우리는 비굴하지 않는가 자문(自問)해 볼 일이다.

인 모두가 이러한 “생명의 가치와 존엄성”에 대한 가치평가의 절대기준을 인지하고 산다면, 세상은 바뀌게 될 것이 틀림없다. 돈과 물질로 환폐화된 세상에서 아름답고 평화로운 지상천국으로 말이다.

누군가 바꾸겠지, 내가 아니어도 다른 사람이 하겠지, 때가 되면 되겠지 하는 생각만 가진다면 영원히 그 세계 건설은 요원할 것이다. 그것은 특정

한 소수의 정치지도자나 한 사람의 대통령으로도 감히 바꿀 수 없다. 한 사람의 의식과 행동방식이 바뀌어야 한다.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일반 백성 모두가 이러한 참다운 용기로 충만하게 되면, 추운 겨울이 가면 따뜻한 봄이 오듯 자연스럽게 그런 이상향(理想郷)으로 변한다. 그것이 안 된다면 그 세계는 영원히 꿈으로만 남게 되지 이 땅에서 이뤄질 수 없다.

이러한 생각을 바꾸는 데도 용기가 필요하다. 과거의 사고와 행동적 습성을 바꾸는 것은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니다. 오죽하면, 역사 속에 수많은 선지자들이 절대다수의 무지에서 비롯된 고경관념과 편견으로 처참히 죽임을 당했을까! 그것은 각자가 “무엇이 중한지”를 판단할 줄 아는 참 지혜와 뼈를 깎는 자기 성찰, 거기에도 거짓과 위선에 타협하지 않는 불굴의 용기가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항상 새로운 것에 대한 열린 마음과 학구적인 자세가 바탕이 되어야 하겠다. 저마다의 가슴 속 저 깊은 곳에서 참다운 용기가 뜨겁게 용기할 때, 차갑게 얼어붙은 이 사회는 아름답고 평화로운 생명력 넘치는 활기찬 세

상으로 변화될 것이 확실하다. 그렇게 되면 곳곳에서 꼭 막히고 빽빽처럼 얼어붙은 차가운 세상이 따뜻하고 화평한 세상, 살맛나는 세상으로 변할 것이다. 이것이 하늘의 뜻(天道)이고, 하늘이 도모하고자 하는 섭리(天理)인 것이다. 면데서, 어려운 데서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말자. 바로 참다운 용기를 저마다의 가슴 속에 품음으로 개벽된 세상을 맞이할 것이다.

勇於敢則殺(용어감칙살): 과감한 용기는 죽음을 전제하고  
 勇於不敢則活(용어불감칙활): 과감하지 않은 용기는 삶을 전제하오  
 此兩者 或利或害(차양자 혹리혹해): 이 둘은 혹 이롭기도 하고, 혹 해가 되기도 하오  
 天之所惡 孰知其故(천지소악 숙지기고): 하늘의 뜻이 닿지 않는 것에 대해서 누가 그 연고를 알겠는가?  
 天之道(천지도): 하늘의 도에 있어서  
 不戰而善勝(불전이선승): 싸우지 않아도 잘 승리하며  
 不言而善應(불언이선응): 말하지 않아도 잘 응답하며  
 弗召而自來(불소이자래): 부르지 않아도 스스로 오며  
 纘然而善謀(천연이선모): 느긋하면서도 잘 도모되나니  
 天網恢恢(천망회회): 하늘 그물은 넓고 넓어서  
 疎而不失(소이불실): 엉성한 듯하지만 놓치는 것이 없소이다.\*

김주호 기자

<b>승리신문</b>		1990. 3.3 등록번호 다 - 0029
발행인 겸 편집인 김중만		
<p>본지는 구세주(정도령, 미륵불)께서 말씀하신 사람들이 실제로 죽지않는 원리(영생학)를 누구든지 쉽게 배우고 실천할 수 있도록 소개하여 질병과 죽음이 없는 개벽된 세상을 만들고 진정한 평화의 세계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발행됩니다.</p>		
<p>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안곡로 205번길 37          우 14679          홈페이지 www.victor.or.kr</p>		<p>광고 및 구독신청          전화 032) 343-9985          FAX 032) 349-0020</p>
본지는 신문윤리규칙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